





2023 더 자스민 일보(一步)

*일보(一步) : 한 걸음 나아감

- “[밑줄 클릭](#)”만으로 본문 열람 가능합니다 -

 @writist_son
 @anywriting
 @bestjasmineever
 @super_eunkyung

Since 2020



조금 전 공천 준비 중에 있는 그를 만나고 오는 길이다. 20분쯤 그의 이야기를 듣고 10분쯤 내 이야기를 했던 거 같은데, 전부 기억나진 않지만 이것만은 잊지 않고 있다. “5년 그거 금방이에요.” 지난 선거에서 떨어지고, 5년은 그에게 꼭 새해 같았는지 모른다. 시간 순삭. 그래서 그리 말했던 건지 모른다. 그렇다, 이것은 밑밥. 2023년 새해가 밝았다는 인사에 앞서 서두가 길었다. 신년이다. 다들 헛 버릇은 버리고 올해 기를 새 습관을 정했는가. 혹은 올해 키워드는. 나는 정했다. 더러 있으나 그 중에서도 으뜸은 #기본. 기본부터 알뜰살뜰 챙기고 싶은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2023은 내게 기본이다. 어쩌면 기본은 초심자의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. 나로 돌아가, 가장 명랑하게 활동하고 싶은 마음, 글에 오리지널 내가 담기길 바라는 마음, 새 시작이라는 가짐. 여러 마음과 가짐이 뭉쳐 2023년을 맞이한다. 올해를 고대한다.

2023, 새해 복 듬뿍 받으세요!



※ **자매 품 : “손은경 글방”**



“**발아 글방**”, 싹을 틔워 꽃 피우다

- 글쓰기 초보를 위한 글방을 만들었습니다. 올해는 쓰시기를!
- 시작 : 2023.2.21(화) 밤 9시 ~ ([자세한 사항은 여기로](#))



칼럼



“글 속의 글”

1. 쓰기 | 잘 쓴 글이란, 대체 어떤 글을 말하는 걸까?(이론편)
2. 쓰기 | 잘 쓴 글이란, 대체 어떤 글을 말하는 걸까?(실천편1)
3. 글방 | 합평의 쓸모
4. 출간 | 반복되는 출간 거절로 좌절하고 있다면 이 글을 꼭 읽어 보세요
5. 출간 | 내가 쓴 글이 나만 쓸 수 있는 글을 의미하지는 않는다

<나의 비건 분투기> 포함, 5권 지

손은경 작가의
‘튀르키예 국제부부’ 리얼스토리

글을 매개로 창작을 합니다.
#국제부부 #혼의아내 #창작자

네이버에서 ‘국제부부’를 주제로 연재 시작했습니다. 튀르키예인 남편 훈과 한국인 아내 은경만 할 수 있는 인터넷서널 커플 이야기입니다. 이것까지 말해도 웬찮을까, 싶을 정도로 뒤집어 까 탈탈 털어 쓰고 있습니다. 이런 사랑도 있고 저런 사랑도 있음을 간접 알리기 위해 말이지요.

매주 목요일 절찬 연재 중

[▶ 보러가기](#)